



조합원 의견을 듣습니다

2/6일까지 조합원 설문조사

지부가 2018년 임단투를 비롯한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2월 6일까지 각 지회별로 실시될 예정으로 이렇게 모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투쟁계획이 만들어진다. 그동안 지부, 지회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해 실시되던 설문조사에서 더 확장돼 지역사회 개선에 필요한 요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노동의제까지 발굴해서 투쟁

이번 설문조사는 2018년 임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이면서, 사업장 교섭을 넘어서는 주거,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노조파괴·복수노조 문제로 인해 지부 내에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지회가 늘어나면서 임단협 투쟁이 교섭권을 가진 지회만의 투쟁으로 한정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사업장 내의 교섭으로 임금,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업장 간의 격차를 늘리기도 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임단투가 진행된 것이다. 지부는 올해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는 산별노조의 모습을 되찾고, 지역의 미조직노동자에게도 더 다가가는 투쟁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 첫 걸음이다.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필요해

설문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각 지회별로 전체 모임, 구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만나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매해 반복되는 임단협 의견수렴 설문조사가 아니라 다시 산별노조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생각해 많은 동지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2월 1일 대전지역 최저임금 설명회

지부가 2월 1일(목)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최저임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덕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지부가 함께 주최한다. 대덕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은 지부와 대전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만든 사업단으로 지역의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당시에는 역대 최고의 인상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그러나 정작 시행시기가 되자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늘리려는 개악이 시도되고, 사업장에서는 상여금 및 각종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다. 대덕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은 미조직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 설명회를 기획했다. 최저임금이 곧 내 임금인 미조직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주요 일정 *

- ☐ 지부 운영위원회 교육
“조직된 노동자는 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해야하는가?”
1/29(월) 14시, 지부 회의실
- ☐ 최저임금 개악·편법 저지 1인 시위
1/31(수) 11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 ☐ 대전지역 최저임금 설명회
2/1(목) 18시30분,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